

1) 진혜원 "이재용 회장 등 구속되면 돈 덜 줬나 의심" 검찰개혁 주장

강민혜 입력 2022. 04. 30. 12:51 수정 2022. 04. 30. 13:26 댓글 27 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글



진혜원 검사(가운데) 페이스북.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 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 검사는 30 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란해서 저녁 늦게 지인과 비락식해 한 병 했다"며 "검사가 기소만 할 수 있는 입법을 하는데 왜 에너지를 쏟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글머리를 열었다.

● "전직 상사 돈벌이에 이용당해"

그는 "상사로부터 '○○○ 소환해서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환해서 조사하면 전관 변호사와 출석하는데 그런 후에는 내사 종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부하면 사건을 재배당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몇 번 겪다보니 수사를 통해 전직 상사 돈벌이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후배 공무원들 장래 자기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시스템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적었다.

이어 "선배들과 고민 상담도 해봤는데 그냥 내사 종결하지 뭘 고민하냐고들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후배들은 '제가 안 하면 제 동기가 할 텐데 그 꼴은 못 봐요'라며 지시를 따른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이재용 회장 등 재산이 제법 되는 사람들이 구속되면 달라는 돈을 덜 줬나 하는 의심부터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hyewon jin
12시간 · 🌐

...

[비락식혜]

심란해서 저녁 늦게 지인과 비락식혜 한 병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만 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데 왜 오징어 에너지를 쏟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어린 오징어 시절의 일화를 떠올렸습니다.

상사로부터 "OOO 소환해서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환해서 조사하면, 전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데, 그런 후에는 내사 종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부하면 사건을 재배당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몇 번 겪다보니 수사를 통해 전직 상사 돈벌이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후배 공무원들 장래 자기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시스템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배들과 고민 상담도 해 봤는데, 그냥 내사종결하지 뭘 고민하냐고들 하는 것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후배들은 '제가 안 하면 제 동기가 할텐데 그 꼴은 못 봐요'라고 하면서 지시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용회장 등 재산이 제법 되는 사람들이 구속될 경우, 달라는 돈을 덜 줬나 이런 의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선배들 돈 벌어주는 사냥개로서의 능력'과 '국회 의석 비율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인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봐 왔기에,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은 휴지통에나 들어가야 할 원시사법이 되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법 집행 기관의 불법이 '불법의 트리클 다운 현상'을 초래하듯 국민 전체에 만연해진 느낌입니다.

비락식혜 한 병을 나발 볼듯 다 비웠더니 좀 취한 것 같습니다.

추가:

비락식혜 23캔 세트에 쌀알 빼고 그러지 맙시다, 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2022.04.30

진 검사는 "회사에서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선배들 돈 벌어주는 사냥개로서의 능력'과 '국회 의석 비율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인 경우를 자주 봤다"고도 했다.

그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은 휴지통에나 들어가야 할 원시사법이 됐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법 집행기관의 불법이 '불법의 트리클 다운 현상'을 초래하듯 국민 전체에 만연해진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 진 검사, 현재 정직 상태

진 검사는 지난달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진 검사는 같은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의결됐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과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 글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2022.03.26



Hyewon Jin

3월 26일 · 🌐

...

[내 책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박원순 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1999년 흑석일보 기사를 보고서였습니다(옛날에 스크랩북 포스팅한 적 있습니다.).

그 후 2015년경 임대식 선생님이 쓰신 '박원순이 걷는 길'이라는 평전을 읽었는데, 중고책 대마왕이라는 두 분이 중고서점에서 세기의 대결을 벌인 이야기를 읽고, 책을 많이 읽는 분은 오징어 팅구라는 신념에 따라 오징어의 팅구로 삼았습니다.

그 분은 자기가 오징어 팅구인 줄 전혀 모르셨습니다. ㅋ.

이후 참여연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후배로부터 '내 책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책을 소개받고 교보문고까지 걸어가서 구입했습니다.

엣그제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분통이 터진 나머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 해버릴까' 하는 결의로 들고 갔었습니다.

오징어를 대리하신, 냉철하고 침착하신 정철승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만류로 낭독 대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ㅋ

이 책은 현명하고 용기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의 재판 과정을 재미있고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지자스 크라이스트, 갈릴레오, 잔 다르크, 드레퓌스(+에밀 졸라), 로젠버그 부부가 우선 떠오릅니다.

이런 저서를 보면, 여론재판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파렴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신념을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후대 군중들의 심리가 맞교차되면서 누가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알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의결됐다고 들었는데, 오징어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항이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직하지 않게 살겠습... ㅋ

사유는 진실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입니다. ㅋ